

# 악(惡)에 대처하는 시적 전략의 한 가지

- 여상현의 「칠면조(七面鳥)」를 중심으로

정민구\*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외래(外來)한 변절자의 표상, 칠면조
- III. 변절의 고발에서 변절의 고백으로
- IV. 나가는 말

## | 국문초록 |

여상현의 시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는 월북작가인데다 단 한 권의 시집인 『칠면조(七面鳥)』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몇몇 기왕의 논의들은 주로 여상현의 생애에 대한 궤적을 추적하거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칠면조』에 수록된 시들의 전체적인 사상적 지도를 그리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집의 표제이자 대표시인 「칠면조」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칠면조」의 시적 의미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전복적 시-읽기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표준적이고 일면적인 시적 어휘의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다음에는 가급적 비-표준적이고 이면적인 시적 전언의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칠면조」는 언표내적 차원에서는 악에 대

---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 고발의 방식을 시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언표외적 차원에서는 악에 대한 시인의 고백의 방식을 시적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시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칠면조」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기-반성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실천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요컨대, 고발에서 고백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도래할 파국적 상황 속에서 악에 대처하기 위해 나약한 인텔리 시인이 선택한 시적 전략의 한 가지였던 것이다.

주제어 : 여상현, 월북작가, 악/악의 축, 고발의 시적 전략, 고백의 시적 전략, 자기-반성

## I. 들어가는 말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사자성어에 익숙한 우리에게 21세기적 선악(善惡)의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일 테다. 오늘날의 우리는 민주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전자를 선의 축(Axis of good)으로, 후자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미국식 정치 수사학의 입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이다. 지젝(S. Žižek)은 “이런 선택 조건에서 ‘근본주의’를 선택하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그러한 표현은 ‘근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한다고 꼬집는다.<sup>1)</sup> 지젝의 지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선악의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악의 축을 먼저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선의 축을 사전에 전제하기 위한 ‘꼼수’에 가

---

1) 슬라보예 지젝,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현우·김희진 역, 자음과모음, 2011, 14쪽.

값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꼼수부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선악 규정에 대한 비판은 정치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적 전통에서 유래한 ‘인간의 모든 활동이 곧 정치’라는 상식적 진술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치체계를 향한(against) 문제의식은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악의 축을 규정하고 선의 축을 규정하는 방식이 놓여있던 ‘문제적’ 자리를 인간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살피는 ‘비문제적’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은 인간적 행위의 기만적인 이면을 문제 삼는 동시에 정치체계의 이면까지를 문제 삼는 상호-역동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가? 물론 직접 관찰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혹은 최소화하면서 인간 혹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세세히 엿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문학-읽기가 있다. 세계문학 전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거나 유명 작가나 학자들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록을 곁눈으로 슬며시 살펴보기만 해도 눈치 챌 수 있듯, 문학이란 언제나 인간 혹은 인간 행위의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제 행위를 살피기 위해 모든 문학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을 여상현(呂尙玄)<sup>2)</sup>의 「칠면조(七面鳥)」라는 시를 통해 내딛고자 할 뿐이다.

## II. 외래(外來)한 변절자의 표상, 칠면조

여상현의 시집 제목이자 시의 제목이기도 한 ‘칠면조’는 누구나 알

---

2) 여상현의 본명은 呂尙鉉이며 呂尙玄은 필명이다. 여기에서는 작가의 본명 대신 잘 알려진 필명으로 (예컨대 시인 김윤식을 ‘김영량’으로) 표기하여 연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내의 표준적인 연구 관습을 따라 필명으로 표기한다.

고 있는 것처럼 외래종 새의 이름이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중요하듯 문학에서의 제목은 언제나 글자 그대로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책의 상징적 얼굴로서의 제목”<sup>3)</sup>에 대해 먼저 검토하는 일이 바로 읽기의 시작이 될 터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가장 잘 알려진 종은 들칠면조 (Meleagris gallopavo)로 북아메리카 원산의 수렵조류였으나 요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축화되었다. 칠면조의 가축화는 멕시코에서 시작되었고, 들칠면조는 16세기초 스페인인에 의해 유럽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류가 영국에서 대중화되자, 그전에 터키에서 도입된 호로새와 같은 종류의 새로 혼동하여 ‘터키닭(turkey-cock)’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후 17세기에 영국의 개척자들은 칠면조를 북아메리카 동부에 도입하게 된다. 그러한 칠면조가 언제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신, <어원유래사전>에 의하면,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전기에 도입되었으며, 머리부터 목에 걸쳐 털이 없고 살이 늘어져 있는데 그 색깔이 붉은색, 푸른색, 보라색 등으로 변화하기에 ‘칠면조(七面鳥)’라는 이름이 붙었다. 더불어 일본의 니카타 현에서는 변덕이 심한 사람을 가리켜 칠면조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sup>4)</sup>

우리나라에서도 칠면조라는 용어를 사람에게 활용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 사례의 하나를 살펴보면, 일제 치하였던 1923년 11월 22일자 『동아일보』는 경성부(京城府) 협의원을 뽑는 선거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각 후보자의 얼굴빛은 웃는 자, 찡그린 자, 푸르러지는 사람, 붉어지는 사람 등 완전히 칠면조의 행렬을 보는 것 같았다”<sup>5)</sup>며 부정적이고 풍자적인 어조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듯 칠면조는 외래종 새에게 붙여진 이름인 동시에 색이 변한다는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사한 행동 - 부정적 행동 - 을 가리키는

3) 조주관, 『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 연세대출판부, 2007, 25쪽. 그는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달리 강조하기 위해 “제목의 시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4) <語源由來辭典>에서 ‘七面鳥’ 항목(<http://gogen-allguide.com/si/shichimentyou.html>) 참조.

5) 『府議選舉雜觀』, 『동아일보』, 1923. 11. 22.

문화적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다. 사실상, 칠면조가 뜻하는 용례는 오늘날의 일상적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sup>6)</sup>

지금까지는 어원, 용례로서의 외래종 새를 가리키는 칠면조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문학으로서의 「칠면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速製の 憂國士와 洋裝女들은  
어느새 七面鳥의 習性を 배웠다  
낮설은 사람과도 外交가 能해  
蓄財의 지름길로만 달리는 것이다

일직이 黑人들이 즐기던 새라  
開拓者들이 잘도 먹었었다지  
「린컨」氏의 獅子吼가 功을 이루어  
解放朝鮮에까지 와준 黑人의 恩惠를 어이 모르라

昌慶苑에서 돈 내고야 구경한  
가지 가지의 異國産 증생중에도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變節의 奇鳥  
謀利輩들은 무릎치며 歎服하리라

「크리스마스」의 七面鳥料理床스가에  
戀愛도 장사도 政治도 하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오매  
國民들의 榮養이 좀 좋았으랴  
호사스러운 歲月이 연실처럼 풀려나가는것이러다

---

6)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결과 어떤 블로거는 “의로운”이라는 주제어에 대한 말-이어가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칠면조처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는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의와 신념에 불타는 의로운…”(<http://cafe.daum.net/whwlsqhr1357>. 2011. 12. 13.). 강조는 인용자.

매마른 이나라 백성들도  
 이제 七面鳥料理를 귀떨어진 소반우에 올려놓고  
 情다운 食口들이 모이고, 四寸성님도 오시래서  
 獨立이 오느니 가느니 이야기 할건가

- 「칠면조」 全文

이 시의 표제이자 소재인 ‘칠면조’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칠면조의 어원과 용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칠면조는 ‘외래(外來)’한 새의 이름이다. 이 시는 그러한 상식적인 사실을 배제하지 않고 언급하는데, 매 연마다 칠면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간접적인 언급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여하튼 이 시에서 말하는 칠면조는 “異國産 증생”으로, “일직이 黑人들이 즐기던 새”였고, “開拓者들이 잘도 먹었다”고 하며, “變節의奇鳥” 즉, 변절/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기이한 새이다. 둘째, 칠면조는 변절/변화라는 특성을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빗대는 문화적 관용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칠면조의 부정적 습성을 (특정) 인간의 행위와 결부시킨다. “速製의 憂國士와 洋裝女들은/ 어느새 七面鳥의 習性を 배웠다” 즉, 기회주의적인 우국지사와 모던걸들은 변절이라는 칠면조의 습성을 본받았기에,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蓄財의 지름길로만 달리는 것이다.” 기실 칠면조는 “가지 가지의 異國産 증생중에도/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變節의奇鳥”인데, 그것의 재주인 변절을 지켜본 “謀利輩들은 무릎치며 歎服”을 한다.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七面鳥料理床入가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는 “戀愛도 장사도 政治도 하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칠면조의 습성을 배운 이들은 “낮설은 사람과도 外交가 能해”서, “호사스러운 歲月이 연실처럼 풀려나가는것”이다. 사정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국지사나 모던걸도 아니고 모리배도 되지 못한 “매마른 이나라 백성들도” 이제는 “七面鳥料理를 귀떨어진 소반우에 올려놓고/ 情다운 食口들이 모이고, 四寸성님도 오시래서/ 獨立이 오느니 가느니 이야기 할” 시대가 된 것인가를 ‘묻는’ 것이야말로 이

시가 차용하고 있는 칠면조에 대한 부정적 용법의 마지막 수준이 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요컨대, 이제 그러한 변질의 습성을 배우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백성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칠면조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의 시적 언술은 앞서 말한 바 있는 사전적 언술과 동일한 것이다. 적어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읽기가 마무리된다면, 이 시는 칠면조에 대한 사전적 묘사와 문화적 용례를 가져와 짧은 시행을 특징으로 하는 서정시라는 형식 속으로 옮겨 심은 것, 혹은 그것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시적 전언을 파생시키는 것, 예컨대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나 패러디(parody)에 가까운 방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분명, 시집의 표제이며 중요한 작품으로 항시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칠면조」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이 다른 시들보다 비교적 짧은/짧아지려는 현상은, 그런 심층에 가까운 ‘혐의’를 물증의 자리로 옮겨놓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실상 여상현의 시를 다룬 논문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sup>7)</sup>에서 「칠면조」는 여상현의 사상적 지향에 따른 시적 풍자의 방식을 환기시키는 데에만 주요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석이 이루어졌다 해도 예의 차원에서 확인-가능한 사실의 단편적인 열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칠면조」 읽기가 그러한 지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복적’ 의견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인정(recognition)이란 우리가 ‘아는 것(cognition)’을 ‘다시 아는/알아가는 것(re-cognition)’이라는 라캉(J. Lacan)적 전언을 상기한다면, 이상의 논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re)-시작될 필요가 있다. 미리 밝히자면, 이렇게 재-시작하려는 읽기는 「칠면조」의 시적 의미를 재-구축하려는 기대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7) 최학출, 「자기성찰과 시적 현실주의: 呂尙玄論2」, 『울산어문논집』 제7집, 1991.

박홍원, 「呂尙玄論」, 『한국시문학』 제5집, 1991.

유성호, 「呂尙玄 시 연구」, 『연세어문학』 제27집, 1995.

전영주, 「呂尙玄 研究」, 수원대 석사, 1995.

최라영, 「呂尙鉉 연구」, 『한국시문학』 제15집, 2004.

전동진, 「여상현 시의 ‘여럿주체’와 근대적 시선」, 『호남문화와 근대성 연구1』, 심미안, 2007.

우선, 이 시의 중요 제재가 되는 칠면조에 대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칠면조는 외래한 새이다.

② 칠면조는 변절/기회주의라는 인간의 부정적 습성을 빗대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두 가지의 정보는 ① → ②라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①,②를 글자 그대로 온전히 형상화하고 있는 시가 「칠면조」라고 오인되는 ③이라는 분석/해석 과정이 덧붙여진다. 그렇다면 ③의 오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저 순차적인 방식의 정보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이것은 기호화의 과정을 역으로 기호화하는 것과도 같다.

먼저, 이 시에서 부정적 인간의 전형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우국지사(“憂國士”)와 모던걸(“洋裝女”), 그리고 모리배(“謀利輩”)들이다. 그들은 일제 강점이라는 암울한 상황, 곧 사회 역사적 변혁기의 시류에 빠르게 편승하여 정당한 역사 발전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윤리적 규범을 교란시키는 기생층에 다름 바 없는 존재들이다.<sup>8)</sup> 이때, 우국지사와 모던걸, 모리배들의 출현,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특정한 시대적 정황과 결부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그에 덧붙여, 당시의 신문지면은 이러한 추정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준다.

가령, 우국지사(“憂國士”)의 경우에는 보통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사적 인물을 가리키지만,

금회 서미사령관이 내지(內支)해야 시국수습과 함께 널리 **우국사**와 적극적으로 제휴하고 동심협력, 도의를 기초로 하고 신중국건설에 당하게 된 것은 오인(吾人)의 평화주장 즉 유신정부가 종래 실행하여 온 방침과 전혀 일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로지 일지(日支) 양국의

---

8) 최학출, 앞의 논문, 122쪽.

행복일뿐 아니라 또 전세계의 복지이기도 하다<sup>9)</sup>

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정황에서는 일제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합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었으며, 모던걸의 경우에는 보통 신여성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살님사리 부너는 물론 아니고 그러타고 여학생인가하면 그것도 아니고 기생인가 하면 역시 기생답은 곳이 업고 불량녀인가 하면 전연히 그것치도 아니하니 행동과 사상의 성격파산자라고 할 것이 제일 적당할 듯하다<sup>10)</sup>

는 평가 ‘또한’ 받고 있었으며, 모리배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의미에서 대개의 사기꾼을 뜻하지만,

먹을 죽물도 업서 멧끼를 굶고 한벌 낚은 옷도 업서 추음과 주림에 밤낮 우름으로 량식 삼고 지내는 자가 멧만…이 슬픔 속에서 죽어가는 자의 죽음을 드리고 좇타고 춤추는 악한이 곳곳에…온갖 수단을 다 써가면서 돈이 귀한 이틈을 타서 사리를 도모<sup>11)</sup>

하는, 다시 말해 식민치하의 혼란 속에서 활개를 치며 같은 동포들을 협잡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때, 우국사-양장녀-모리배는 모두 외래적인 것이거나 그것과 결부된 존재에 가깝다.

이상에서 보듯, 그리고 표준적인 의미에서 당대의 시대적 정황과 언어는 상호-역동적이다. 따라서 문학에 사용된 언어 역시도 그 문학이 만들어진 시대적 정황과 깊은 관련성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우국사”, “양장녀”, “모리배”라는 시적 표현은 당시

9) 「西尾司令官聲明 維新政府大歡迎」, 『동아일보』, 1939. 10. 4. 본문 중 강조는 인용자.

10) 「“毛斷결”과 “男性解放聯盟”」(2), 『동아일보』, 1927. 8. 23.

11) 「謀利輩暗中飛躍」, 『동아일보』, 1924. 10. 9.

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 행위를 일삼는 인물을 대표하는 표상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 행위는 평범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일상의 축에 맞닿아 있기도 하면서, 실제 항일에 앞장선 우국지사나 전통을 버리지 않으려했던 도학자와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들을 위해 교묘하게 행동했던 회색지대의 사람들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선의 축’으로 규정/구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저히 ‘악의 축’으로 기울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상 「칠면조」는 변절자들에 대한 고발이라는 시적 전언의 구축을 위해, 악한 인물과 선한 인물 사이에서 전자를 전면에 형상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분명 악에 대한(against) 시적 전언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의 칼날이 날카롭지 않게 여겨지는 까닭은, 이 시가 그 전언을 칠면조에서 파생된 아주 흔한 관용적 의미(①+②)에 실어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변절이라는 악한 행위를 일삼는 우국지사, 모던걸, 모리배와 같은 인물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적 전언을, <변절자는 외래한 칠면조이다>라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하며 회화적인 은유로 돌려놓고 마는 것이다.

### III. 변절의 고발에서 변절의 고백으로

한편, 칠면조를 닮아 변절을 행하는 우국지사, 모던걸, 모리배들이 아무리 악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악의 근원이 칠면조가 외래한 것처럼 외래한 것이라면,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적 힘이 온전하지 않은 저들 및 우리에게 잘못이 없을지도 모르는 자기-회피의 태도는, 나약한 인텔리들이 식민치하에서부터 계속하여 전유하고 있던 표준적인 자기-위안의 방식이다. 가령, “프롤레타리아도 아니면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의식을 소유한 자, 사회주의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환경(존재)로부터 분리된 이 ‘의식’ - 마치 유체 이탈을 연상시키는 - 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정의의 최대 관건이었는지도 모른다.”<sup>12)</sup> 다시 말해, 부정적인 것이나 그것의 원인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물은 식민지 시대 나약한 인텔리들

의 전형이며, 그러한 인텔리들이 작가일 경우, 그들의 작품에서 하나의 기법으로써 고발/폭로라는 문학적 전략을 발견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깥의 현상에 대한 고발/폭로는 그것이 가급적 리얼하면 할수록 효과를 얻는다. 그런데 거기서 얻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일체의 것을 고발한다는 부정의 정신으로 현실을 리얼하게 재현하고자 했던, 그가[김남천이] 이후 발자크 류의 관찰 문학론으로 정식화한 묘사의 리얼함은 ‘리얼함’ 내지 ‘리얼리티’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리얼하게 재현함으로써 진짜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은 실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창조하는 발화자의 시선/욕망을 은연중에 삭제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서사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sup>13)</sup> 말하자면, 리얼하게 고발하는 전략을 택할 경우, 그 과정 속에서 발화자/작가가 리얼하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자기-위안의 방식이 수반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칠면조」의 시적 전략 속에서 우국지사, 모던걸, 모리배들에 대한 고발의 제스처를 엿볼 수 있으면서도, 그 고발의 강도가 느슨하게 여겨지는 모종의 지점이 여운으로 남게 되는데, 그 까닭은 바로 고발의 제스처가 중국에는 회화화 되면서 발화자로서의 시인을 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발화자의 고발이 사라진 자리에서 독자로서의 우리는 그 웃을 수 없는 희극적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발화자는 어디로 갔는가?

「칠면조」라는 시를 통해 사회적 부조리의 일체를 칠면조의 변질의 습성을 배운 세 가지 부류의 인물로 대리 표상하여 고발한 시인 여상현은 사실상 “노동자도 농민도 아니었다. 명문인 延專출신이요, 우수한 일간신문인 서울신문 기자로서 버젓한 知識人이었다. 또한 父親이 1개의 面의 행정을 맡은 面廳의 長이었다. 물론 부친이 영농을 하였지만 2백여평의 대지에 안채, 바깥채, 사랑채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농토를

12) 이혜령, 「지식인의 자기정의와 '계급」, 『상허학보』, 제22집, 2008, 139쪽.

13) 공임순, 「식민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2006, 206쪽.

소유한 大農家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詩의 題材에 노동자 농민에 관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동류의식 속에 그들의 빈곤상을 리얼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호흡을 같이 하는 시정신을 견지했던 까닭은 무엇일까.”<sup>14)</sup> 이러한 박홍원의 물음은 여상현의 성장 배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실생활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농촌과 탄광촌이 고향집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그러한 노동자 계층의 삶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데에서 일단 락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여상현의 전기적 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주변 환경 및 父系 경험의 사례를 통해, 그가 보여준 소위 反계급적 시-쓰기의 원인을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박홍원은 어디까지나 심증의 수준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시도한 심증적 차원의 원인 규명은 이후의 논의에서도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부터 한참 뒤, 여상현의 전기적 사실에서 비롯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최라영 또한, “전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여상현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뼈골과 어머니의 치마끈으로 가방을 멘 중학생’, 혹은 ‘산골 탄광으로부터 가족의 출행량’ 등으로 표상된…묘사[에서]처럼 그의 집안이 실제로 신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상현의 시-쓰기에 “어느 정도 ‘주의자’로서 해방 후 그의 사상적 입장이 윤색되어 다루어진 측면”<sup>15)</sup>이 있음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칠면조」는 우국지사, 모던걸, 모리배로 표상되는 부정적 인간 군상을 고발하고 있는 시이다. 이때 고발이라는 방식은 부정적인 것에 대처하는 시인의 시적 전략의 하나이다. 그런데, 식민지적 인텔리 지식인이 취한 리얼한 고발의 방식은 “발화자의 시선/육망”을 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칠면조」에서는 고발의 방식이 희화화되면서 시인의 목소리가 느슨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로

14) 박홍원, 앞의 논문, 84쪽.

15) 최라영, 앞의 논문, 93~94쪽.

부터 우리는 <시인=발화자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여상현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부유한 인텔리 작가에 속한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보고 느낀 현실이 어땠든 간에 그것을 ‘사상적으로’ 윤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칠면조」가 취한 고발이라는 시적 전략은 ‘역시’ 윤색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메마른 이나라 백성들”에 대한 시인의 시선은 고발의 방식 이라기보다는 염려의 방식 - 물론 희화화된 - 에 가깝다. 요컨대 문제는 ‘고발’에서 ‘염려’로 전환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래서 고발을 시적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여상현의 시에 있어서 “오히려 이례적 독설처럼 여겨지는 냉소와 풍자가 이 작품에 가득하다”<sup>16)</sup>는 역설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전략이 외려 문제적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칠면조」에서의 시인의 태도는 왜 그토록 이례적이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례적’이라는 다소 나이브한 용어로 지시하고자 하는 것, 서로 전혀 소통되지 않는/않을 것 같은 두 가지의 사회적-상징적 세계의 장벽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가리켜 지적은 “그것은 마치 어떤 또 다른 세계, 유령적인 세계로부터 손 하나가 불쑥 빠져나와… 일상적 현실로 들어온 듯한 사건”<sup>17)</sup>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것을 “마술적 마주침(magic encounter)”이라고 명명한다. 이때, 고발에서 염려로 전환하는 「칠면조」의 시적 사건을 일상적 현실로 들어오는 ‘마술적 마주침’에 비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건은 표준적인 서정시 독법에서 말하는 저 “환상에서 빠져나오는(disenchanting)”<sup>18)</sup> 과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독자는 어떠한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앞의 질문, <시인의 태도는 왜 그토록 이례적이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우회적인 판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즉, <현실은 왜 그토록 파국

16) 유성호, 앞의 논문, 141쪽.

17) 슬라보예 지젝,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김상환 외 역, 철학과현실사, 2005, 8쪽.

18) Jonathan Arac, “Afterword: Lyric Poetry and the Bounds of New Criticism”, *Lyric Poetry: Beyond New Criticism*, ed. Chaviva Hosek & Patricia Parker,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2, p.347.

적이어야만 했을까?>

기실, 인텔리 시인인 여상현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환경은 프롤레타리아의 것이 아니었으나, 시속에 투영된 그의 정신적인 환경은 프롤레타리아에 매우 근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환경에서 그는 인텔리 시인의 눈으로 악한 행위를 일삼는 부정적 인간의 전형으로 우국지사, 모던걸, 모리배들을 고발의 단두대 위로 올려놓는다. 그런데 그 고발의 방식은, 그것을 풍자로 간주하더라도, 매우 희화적이어서 칠면조 자체에 대한 고발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그러한 시인의 눈은 이제 악한 행위를 행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백성들”에게로 향한다. 그때의 시선은 도저한 고발이라기보다는 시인이 배려한 시적 언술들(“메마른 이나라”, “귀떨어진 소반우에”, “情다운 食口들이 모이고”, “四寸성님도 오시래서”) 덕분에 어떤 의문에 휩싸인 여운(“獨立이 오느니 가느니 이야기 할건가”) 속에서 다분히 염려스러운 것으로 전환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도저한 악의 축이 도저한 선의 축과 교차하며, 현실적 마주침이 마술적 마주침, 곧 실재적 마주침으로 변모한다. 요컨대, 거기에서 시인은 변절의 악인들을 고발하기를 그치고 “메마른 이나라”의 백성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텔리 작가의 나약함과 함께, 그 자신 또한 “메마른 이나라”의 백성이기에 변절의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마는 것이다.

리코르(P. Ricoeur)는 언젠가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결백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이디푸스와 프로메테우스의 사례를 든 적이 있다.<sup>19)</sup> 살인과 간음이라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여행은 알려진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은 부당한 고통에서 시작된다. 그 둘은 회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시초/근원에 다다른다. 거기에서 불을 훔친 것은 선한 일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훔친 것이었다. 오이디푸스와 프로메테우스는 처음부터 결백하면서 허물이 있었다. 그것을 가리켜 리코르는 “결백한 교만”이라고 불렀다.

---

19) 폴 리코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215~214쪽.

<결백은 [처음부터] 교만이다>라는 근원적이고 종교적인 하지만 사소한 개념적 은유로부터, <선은 [처음부터] 악과 공모하고 있다>는 교훈적 언술을 유추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칠면조」를 쓰던 당시의 여상현 또한 고발이라는 교만한 결백에서 시작하여 고백이라는 결백한 교만에 이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악에 대처하기 위해 나약한 인텔리 시인이 취할 수 있었던 시적 전략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한다. 만일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악에 대한(against) 대처로서의 「칠면조」 쓰기/읽기는 변절자들에게 대한 고발이라는 언표내적(illocutionary) 전언을 우리=독자들을 향해서 돌려놓는, 즉 우리=독자들 스스로가 칠면조의 습성을 ‘이미’ 익히고 있음을 ‘사후적으로나마’ 고백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언표외적(perlocutionary) 전언으로 돌려놓는 반성적 작업이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매마른 이나라 백성들”에 여지없이 해당하는 우리=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악의 면전(面前)에 서있는 존재로서의 스스로의 나약함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 IV. 나가는 말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사족이 되기에 충분한 ‘고백’과 ‘보유’를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의 논의에 ‘사후적으로’ 덧붙여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칠면조」의 창작 연도는 『칠면조』의 시집 후기를 참조할 때, ‘해방 후’(1945년 이후)가 된다. 그러나 후기에서 연유한 그러한 정황이 결코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가령, 후기에서는 최근의 작품에서부터 습작의 순서로 작품들을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여상현의 작품들이 잡지에 발표된 연도와 시집에 수록된 순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sup>20)</sup> 더군다나 「칠면조」는 시집에 실리기 이전에는 다른 지면에

20) 작품 발표 연도와 수록 순서의 불일치 및 작품 연보는 유성호, 앞의 논문, 123~124쪽과 최라영, 앞의 논문, 86~88쪽을 참고할 수 있다.

발표된 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창작/발표 연도를 헤아릴 길이 없다. 이것은 「칠면조」의 시적 배경을 추정할 때, ‘미군정’이나 “해방조선(解放朝鮮)”이라는 텍스트 내적 조건을 제외한다면, 해방이전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그것이 해방이후의 체험과 혼효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앞서의 본문에서 「칠면조」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나 진술들이 식민지 시기인 ‘해방 이전’(1945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칠면조」의 창작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 유형이 식민지 시기의 전형적인 인물 유형과 맞아 있다는 두 가지의 정황으로부터 이와 같은 논의가 촉발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보유로 남길 것이지만, 이 연구의 촉발 원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집의 표제이자 시의 제목인 ‘칠면조’가 “昌慶苑에서 돈내고야 구경한/ 가지 가지의 異國産 증생중에도/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變節의奇鳥”라는 시적 언술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창경원은 대한제국의 황실이었는데, 1907년 일제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그 안에 동물원이 설립된다. 그리고 몇 년 뒤 일제의 야욕이 대한제국의 황실을 짓밟았을 때, 우리의 황제는 그곳에서 “異國産” 동물들과 함께 망국의 설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그곳에 칠면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상현의 「칠면조」에서 발화되는 저 현재적인 시적 언술은 ‘창경원’과 ‘칠면조’와 망국의 설움을 유발한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 인간 군상’을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너머에서 적나라하게 현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칠면조』에 수록된 다른 시들에 대한 동일한 맥락에서의 후속적인 읽기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呂尙玄, 『七面鳥』, 正音社, 1947.

『동아일보』

여상현 관련 논문(연도순)

최홍철, 「자기성찰과 시적 현실주의: 呂尙玄論2」, 『울산어문논집』, 제7집, 1991.

박홍원, 「呂尙玄論」, 『한국시문학』, 제5집, 1991.

유성호, 「呂尙玄 시 연구」, 『연세어문학』, 제27집, 1995.

진영주, 「呂尙玄 研究」, 수원대 석사, 1995.

최라영, 「呂尙鉉 연구」, 『한국시문학』, 제15집, 2004.

전동진, 「여상현 시의 ‘여럿주체’와 근대적 시선」, 『호남문학과 근대성 연구1』, 심미안, 2007.

국내논문 및 저서

공임순, 「식민지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자의 형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2006.

이혜령, 「지식인의 자기정의와 ‘계급」, 『상허학보』, 제22집, 2008.

조주관, 『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 연세대출판부, 2007.

해외 논문 및 저서

리뢰르, 폴, 『악의 상징』, 양명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지젝, 슬라보예,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김상환 외 역, 철학과현실사, 2005.

지젝, 슬라보예,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현우·김희진 역, 자음과모음, 2011.

Arac, Jonathan, “Afterword: Lyric Poetry and the Bounds of New Criticism”, *Lyric Poetry: Beyond New Criticism*, ed. Chaviva Hosek & Patricia Parker,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2.

<Abstract>

## Yeo Sang-hyun's "A Turkey" and One of Poetic Strategies against Evils

Jeong, Min-gu

The studies of Yeo Sang-hyun's poetry are not many until now so. Because he was the writer who went to North Korea and only left one collection of poems, *A Turkey*. Some past studies seem to examine closely his life mainly, with the result which comes out from that, try to draw the whole ideological map about his poetry. It is, however, the fact that analysing the poem of "A Turkey" is insufficient so far, despite of which is both title and representative one of his collection. This study attempted a subverting poetic reading, in order to grasp poetic meaning of that poem more widely. Firstly, we analysed it from a level of poetic vocabulary which is standard and one side, secondly endeavored to analyse it from a level of poetic message which is non-standard and reverse side so far as possible. The result is like this. Seeing from illocutionary dimension, "A Turkey" is using the method which reveals 'Axis of evil' as poetic strategy. Also, from perlocutionary dimension it uses the method where poet oneself confesses his evil with poetic strategy. This poetic strategy would cause the practical effect of self-reflection for readers who read that poem. Shortly, the method being first as revelation then as confess, is to be one kind of poetic strategy selected by a weak intelligentsia poet, Yeo Sang-hyun, for handling properly against evils from looming catastrophes.

key words : Yeo Sang-hyun, writer who went to North Korea, evil/Axis of evil, revelation  
as poetic strategy, confession as poetic strategy, self-reflection

이 논문은 2012년 1월 30일에 투고되어 2012년 2월 1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 2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음.

